비극의 테베이야기

자유기고가 김춘경
02)594-2264 abbie1004@hanmail.net

이집트의 테베(Thebes)는 상(上)이집트, 현재의 룩소르(Luxor)마을에 있었던 고도다. 왕도 및 아몬 신앙의 중심지로서 정치와 종교의 요지이다. 카이로 남쪽 약 500킬로의 나일강 변에 있었던 고대도시로 부근에 당시의 유적이 많다. 아몬(Ammon)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이집트인이 태양신 Amen을 부른 이름인데, 그리스인은 Zeus, 로마인은 Jupiter와 동일시했다.

BC 2040년경 테베후(侯)가 전국을 통일한 결과 멤피스(Memphis)에 대신하여 수도가 되었다. 신왕국 시대에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번영하였으나, 수도가 델터로 이전됨과 동시에 지방도시화했다. 나일강 동안에 룩소르와 카르나크(Karnak)의 두 신전이 있고 서쪽연안에 왕릉계곡의 묘지군 등이 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중부 그리스 Boeotia에 있던 도시국가 테베시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테베이야기>다. 페니키아(Phoenicia)는 기원전 2000년경 시리아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고대 왕국으로서 상업국으로 융성했다. 그 내용은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Cadmus)는 신탁에 의해 테베시를 건설한다. 그 증손 라이오스왕은 왕비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내다버린다. 그 후 오이디푸스는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처로 맞아들여 네 아이를 낳는다. 오이디푸스가 추방당한 후에 두 아들이 왕위를 둘러싸고 싸우다가 모두 죽는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이디푸스(Oedip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베왕(王) 라이오스(Laius)와 이오카스테(Jocasta) 사이의 아들로서, 신에게 저주받은 영웅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犯)한다는 신탁 때문에 버려져서 타국에서 자랐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왕의 자리에 앉아 선왕(先王) 살해범을 찾던 중에 그가 바로 자신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탁이 실현되었음을 알게 된다. 깊은 좌절과 고뇌 끝에 자기의 두 눈을 자기의 손으로 빼어버리고 국외로 정처없는 긴 방랑길에 나선다.

신탁(神託:oracle)은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일이다. 즉 사람・사물・자연현상을 중개로 해서 나타내는 신의 뜻이나 말이다. 동물의 소리・별의 움직임・꿈 등에 신의 뜻이 들어 있다고 믿거나, 점(占) 등으로 인간 쪽에서 능동적으

로 신의 뜻을 얻으려고도 한다. 그 전달과 해석은 왕·추장·신관(神官)·무당·주사(呪師) 등 특정인간에 의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의 신탁>이 특히 유명하다.

델포이(Delphoi)는 중부 그리스의 포키스 지방에 있던 아폴론의 유명한 신역(神域) 이름이다. BC8세기경에 그리스인의 식민지 활동이 왕성해지자 식민지의 건설지나 수호신의 선정에 관한 신탁을 주는 곳으로 유명해져, BC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신탁은 개인적인 일에서 여러 폴리스의 화전(和戰)의 결정에까지 두루 이르렀으며, 이의 소문은 그리스 국외에도 과다하게 퍼졌다.

이곳은 전체 그리스인의 신앙의 성지가 되어 여러 도시로부터 봉헌된 물건으로 성역 전체가 마치 하나의 미술관과 같은 모습으로 지녔다. 그리고 그리스 전체의 경기까지도 여기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헬레니즘기(期)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으나 로마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될 때까지 명맥을 그런대로 유지하였다. 유적은 1890년경부터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아폴론 신전, 극장, 경기장, 봉헌물이 있었던 보고(寶庫)·각종 기념물이 있으며, 아테네 및 올림피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유적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핑크스(sphinx)는 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다. 보통 몸은 사자이며 머리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으로서의 파라오 곧 왕을 상징한다. 스핑크스상(像) 중 대표적인 것은 기제의 대(大)스핑크스로 높이 약20m나 되고 전장(全長) 73.5m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성화(女性化)되어 날개가 달려있다. 테베 교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던져 만약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다.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자 골짜기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전한다.

흔히 파멸·패배·고뇌·죽음 등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문학이나 연극을 가리켜 비극(悲劇)이라 한다. 비극은 희극(comedy)의 상대어로, 트래지디(tragedy)의 역어로 쓰이게 되었다. 트래지디는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신(Dionysos神)의 제사에서 산양(山羊)으로 분장한 코로스(무용단)의 노래 트라고이디아(산양의 노래)에서 유래한다.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Plato의 제자로 Alexnder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ole:384~322 B.C.)의 《시학(詩學)》에, <진실되고 엄격한 행위, 어떤 크기로 완결되어 있는 행위의 모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극론의 규범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BC5세기경에 아테네의 국가적인 비극 경연(競演)에 의해, 아이스 로스, 소포클레스와 유리피데스가 탄생되었다. 로마 비극의 흐름은 결국에는 근세에 이르러 셰익스피어에 와서 대성되었다. 또 비극작가이며 시인인 라신(J.B.Racine:1639~1699)이나 극작가이며 시인인 코르네이유(P.Corneille:1604~1684)의 프랑스 고전극에서 그리고 독일의 극작가이며 비평가인 레싱(G.E.Lessing:1729~1781)과 시인·극작가 실러(J.F. von Schiller:1759~1805)의 근대시민 비극으로 발전되었다.

근대극(近代劇)은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기성사회를 비판하고 자아의 해방을 추구한 연극이념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에서 확립되어 일약 근대적인 운동이 되었다. 연극사상에서 근대극이 완성되기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졸라(E.Zola:1840~1902)의

자연주의(Zolaism → naturalism)를 거친 입센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입센은 개인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기성의 사회도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그 결과로 1879년에 《인형의 집(A Doll's House)》 등을 집필하였다.

노르웨이의 대(大)극작가 입센(H.Ibsen:1828~1906)은 《Peer Gynt》(1867), 《Ghosts》(1881) 따위 작품들에 의해 근대극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그리하여 입센주의(Ibsenism)의 형식으로 가정과 사회의 인습적 편견을 타파하고 여성해방 등을 주장한다. 여기서 인습적 수법이라 함은 극 줄거리의 전개 속에 문제를 제시하여 그 해결을 암시하는 작풍을 말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근대극의 참된 이념을 실천한 장소로서 프랑스에서는 앙트완의 자유극장과 독일에서는 브람의 자유무대 등이 있었다. 액자무대(額子舞臺)의 관객석 쪽을 실내의 벽면으로 생각하는 <제4의 벽>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1970년과 1980년을 거쳐 신인들의 대거 참여로 세대교체를 이룩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이디푸스 왕(Oedipus 王)》은 소포클레스(Sophocles)가 쓴 비극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일가(一家)의 불행한 운명을 소재로 하였는데, 가혹한 운명에 휩쓸린 인간의 비극을 삼일치(三一致)의 법칙으로 표사하였으며, 주인공 자신의 선의(善意)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데에 비극의 진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연예에서 때·장소·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고전극(古典劇)의 법칙이 삼일치법칙(三一致法則: three unities)이다. 기원전 430~420년경의 작품으로, 영어명은 에디퍼스 왕(Oedipus the King)이다.

여기서 유래한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인데, 오이디푸스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 그리스 신화에서 연유한다. 어린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성(異性)의 어버이에게 애착(愛着)을 가지며, 동성의 어버이에게는 적의(敵意)를 갖거나 벌받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의사이며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의 제창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1856~1939)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흔히 남자아이와 어머니의 경우를 말한다.